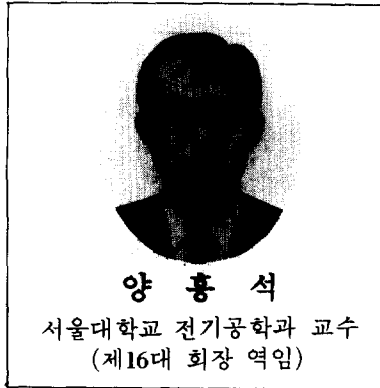


전기학회의 발전을 회고하며

우리 나라의 모든 공업이 無에서 有를 창조한 것처럼 우리 전기학회도 그러한 과정을 밟으며 오늘의 대학회로 발전하였다. 정식으로 설립된 것은 1947年 7月 9日이지만, 尹日重氏의 학회장 퇴임사(1962年 10月 號)에 보면, 원래 전기학회는 1946年 3月 3日에 창립되었다고 나와있으니, 실제로 금년은 41년째가 되는 셈이다.

해방후부터 6.25를 거치면서 1950년대의 어려운 시기를 넘기며 끝까지 지키고 키운 것은 尹日重氏와 李宗日氏의 큰 공로라 아니할 수 없다. 본인이 서울공대 전기공학과를 제 1회로 1947年 7月 11日에 졸업할 당시 졸업생은 단 3명뿐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전기학회의 출발당시가 얼마나 어려운 실정이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윤일중 회장이 울지로의 작은 방을 빌려 쓰면서 학회지에 게재할 원고가 없어서 회원을 만날 때마다 원고를 써달라고 부탁하던 것이 새삼 생각난다. 부정적이거나 학회지가 체제와 내용을 갖추면서 나오기 시작한 것은 1962년에 이르러서 연 2회씩 발행되면서 부터이다. 그 당시 한전의 발전설비용량이 40만kw에 불과하였으며 기술수준이 원체 미비하였기 때문에 학회는 크게 발전할 수 없었다. 그러다가 제 2차 경제발전계획이 시작되는 1967년에 발전용량도 100만kw를 돌파하면서부



터 전기학회도 본궤도에 올라서게 되었다. 이때 이천전기공업주식회사의 장병찬 사장이 회사의 방하나를 고정적으로 사용하도록 배려하여 주어서 이때부터 학회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본인이 편수위원으로 처음 학회에 관여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부터이다. 그리고 1964년부터 회제이사로 일하였는데 그 당시 1年 예산이 수십만원 밖에 되지 않았고 월회비가 담배 한갑 값 밖에 되지 않았으니 아마도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연회비가 6천원 정도이었다고 생각된다. 그 후 전기학회도 꾸준히 발전하고 많은 업적을 남기었다. 본인이 1979年 1월에 학회장으로 취임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학회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학회지 발간을 월간으로 발행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학회지를 월간으로 발행하는 학회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 그래서 전년의 예산이

3천만원이었던 것을 5천만원으로 편성하여 월간으로 발행하였으며, 부수도 연 24,000부를 발간하여 외국학회와도 학회지를 교환하였다.

그 다음에는 1963년에 처음 전기용어를 제정하였으나, 학문의 진보와 더불어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용어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폭적으로 용어를 제정하여 오늘의 전기용어집을 발간하였다. 5개의 연구분과가 있었는데 연 2회의 발표회가 충실히 개최되었다. 조사연구로서는 KS안제정 및 설계기준을 제정하였다. 전기공학편람의 정정판을 만들려고 노력하였으나 너무나 사업이 방대하여 끝내 이루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

1980년은 우리나라의 공업이 발전이나 정체가냐의 기로에 서서 중진국으로의 진입에 대한 열망과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대하여 의욕적으로 매진하던 시기였다. 이때 학계는 꾸준히 정진하고, 업계는 학회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서 큰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는 것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은 국제적 수준의 학회를 이룩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의 많은 전기계 졸업생들이 학회에 가입하여, 학문과 기술의 장을 넓히는 일이다. 우리가 예지를 모아 힘을 합하여 매진한다면 우리 전기학회는 무한히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